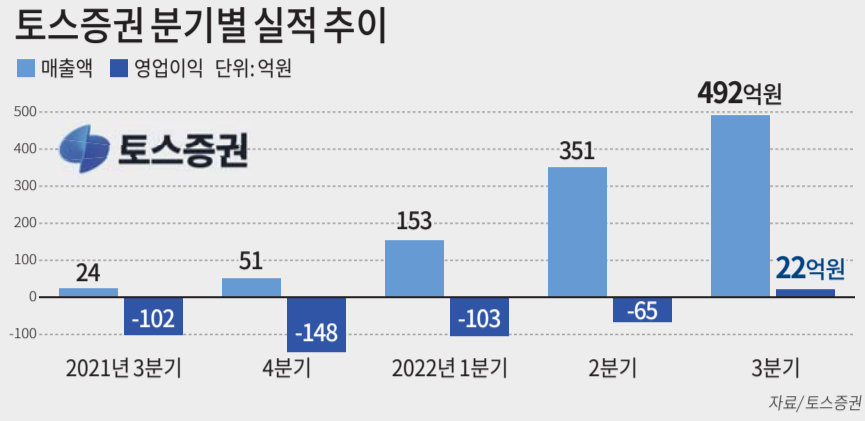


토스증권 '흑자전환' 웃는데... 카카오페이증권 '적자 행진'

엇갈린 핀테크사 3분기 실적표

토스증권 해외주식 서비스 선방
최소 1000원 소수점거래 '시너지'
매출액 492억, 전년비 1950% ↑

카카오페이증권 성장세 주춤
1분기부터 누적손실 359억원



국내 양대 핀테크 증권사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이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토스증권은 해외주식 서비스가 회사의 성장을 견인해 올해 3분기에 회사 출범 후 첫 분기 흑자에 달성한 반면, 카카오페이증권은 성장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16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49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0%, 전년 동기 대비 1950% 급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2억

원, 21억원으로 회사 출범 1년9개월만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해외주식 서비스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30%가량을 차지하며 회사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토스증권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해외주식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후 해외주식 거래대금이 ▲1분기 6조2000억원 ▲2분기 10조6000억원 ▲3분기 13조5000억원 순

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도 ▲37억원 ▲100억원 ▲130억원 순으로 늘었다. 3분기 대형 증권사인 NH투자증권의 수익이 183억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괄목할 만한 성과다.

토스증권은 최소 1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와 올 상반기 선보인 주식 모으기 서비스가 큰

시너지를 냈다고 평가했다. 토스증권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미국 주식을 비롯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리츠(REITs)까지 총 3600여개 종목에 투자가 가능하다.

10월 말 기준 토스증권의 가입자는 450만명,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200만명 수준을 유지 중이다. 지난 9월부터 리츠, 부동산ETF 등 거래 종목을 늘려 본격적인 위탁매매 수익 확대에 나섰다.

반면, 카카오페이증권은 성장세가 주춤하다. 카카오페이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108억8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어 2분기(누적 -239억6000만원), 3분기(누적 -359억원)에도 적자를 이어갔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지난 9월 초 신용거래용자 서비스를 새로 출시하며 신규 수익원 창출에 나섰다. 주식 신용거래용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주식 매수 대금의 전체 나 일부를 용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다.

다만, 신용거래용자 서비스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상반기 말 자기자본 규모는 17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말 대비 340억원 가량 줄었다. 자기자본 규모가 부족해 극적인 수익 창출은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금융업은 자본이 수익의 재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흑자 상태가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빠른 흑자전환 달성이 중요하다"며 "카카오페이증권은 토스증권보다 이익 체력은 못미치는데, 판관비는 더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흑자전환을 위해 더 많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코스피 상장사 누적 순이익 12% 줄었다

상장사 3분기 실적

코스피 601곳서 매출 2084조233억
영업익 1% 늘었지만 순이익 줄어

코스닥 1070곳 매출 22.12% 올라
영업익·순이익 동시증가 '호조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17개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가 24%대 증가했지만 실적면에서 크게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코스닥 업체들은 22%대 매출증가와 함께 영업 이익, 순이익도 늘어나 경제호황기 속에서 선방했다는 평가이다.

◆코스피 상장법인, 매출·영업이익 증가에도 순이익 감소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6일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3·4분기 결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601곳(금융업, 분할·합병기업,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등 제외)의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2084조2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1% 증가했다. 영업 이익은 146조24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늘은 반면, 순이익은 같은 기간 12.35% 감소한 99조6013억원에 그쳤다.

코스피시장에서 전체 매출액의 11.12%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순익 감소폭이 더욱 크다. 상장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5.94%, 0.13% 증가했다. 그러나 순이익에서는 지난해 동기 대비 -18.67%(18조6901억원) 감소한 81조4065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상장사의 영업이익률도 크게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은 5.42%, 순이익률은 3.81%로 1년 전보다 각각 2.63%포인트, 2.45%포인트 하락했다.

601사 중 흑자기업은 483사(80.37%)로 전년 동기(505사) 대비 3.76%포인트 줄었다. 부채비율은 120.09%로 지난해 말보다 3.70%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체 17개 업종에서 모두 매출이 증가했다. 특히 전기·전자업과 화학에서 매출이 37.47%, 37.44% 증가하면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뒤이어 운수창고업, 서비스업, 비금속광물업에서 30%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8개 업종에서 순이익이 감소했다. ▲서

비스업 -39.32% ▲음식료품 -10.64% ▲철강금속 -10.01% ▲통신업 -8.06% ▲건설업 -7.66% ▲화학 -7.38% 등 순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업에 속한 43개사의 영업이익은 36조7829억원으로 전년 보다 5.39% 감소했다. 여기에 순이익도 해당 기간 동안 5.37% 감소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

◆코스닥 상장법인, 3분기 경기침체 우려에도 실적 선방

한국거래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코스닥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1070사의 올 3분기 매출액(이하 연결기준)은 198조84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2% 증가했다. 더불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1.25%, 3.14% 늘어나는 등 실적 호조세가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금리인상, 환율상승,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기와 유사하게 2차전지 관련(IT부품 및 일반전기전자) 업종이 실적을 견인했다"며 "반도체 업종도 호조세를 보이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경.

/DL이앤씨

불황에도 신고가... 명품 브랜드 '아크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264㎡ 타입
130억 거래... 분양 이후 2배 올라

명품 브랜드는 불황에도 여전히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제품 가격을 올리고 신규 매장을 내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가 대표적이다. 에르메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에르메스코리아는 지난해 527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5.9% 증가한 것.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7.8% 늘었다. 에르메스는 올 10월, 약 8년 만에 신규 매장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오픈하는 등 경기상황과 무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이엔드를 추구하는 소비자는 경기상황과 상관없이 가치 있는 소비를 지향하고, 이에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하이엔드 브랜드일수록 불황에도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주택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금리인상 여파로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브랜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불황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차별화된 상품과 기술력을 통해 하이엔드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만이 불황에도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엔드 주거 시장에서 '아크로'는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브랜드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수동 소재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전용 264㎡ 타입은 지난 9월 130억원에 거래됐다. 해당 타입 분양가는 60억5650만원이었다. 분양 이후 2배 가량 가격이 오른 셈이다. 특히 이 물건이 거래된 시기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증감률 -0.2%로 올해 기준 하락폭이 가장 큰 구간이었다.

시장 침체에도 여전히 '아크로' 단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현상은 하이엔드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아크로'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다방이 지난 8월 8일부터 2주간 전국 10~50대 남녀 1만54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인원의 42.8%가 가장 살고 싶은 브랜드로 '아크로'를 선택했다.

이달 초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한 부산시민공원축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보유한 DL이앤씨와 손을 잡았다.

/김대환 기자 kdh@

롯데건설, 단지 내 친환경 전기청소차 운영

롯데건설이 친환경 전기청소차 운영을 통해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단지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롯데건설이 아파트 단지에 운영 중인 친환경 전기청소차는 노면의 미세먼지 흡수 제거와 살수 청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 순수 전기차 방식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과 동시에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방 및 수도권 단지에 제공하고 있으며 적용 단지는 점차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친환경 전기 청소차 도입과 재활용 문화 행사를 통해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등 ESG경영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입주민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킬



롯데건설이 아파트 단지 내 친환경 전기청소차를 운행 중입니다.

/롯데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